

탈네모글꼴에 관한 역사적 연구와 전망
-세벌식 한글 글꼴을 중심으로-

A historical study on the flexibility square-format typeface and the prospects
-Focused on the three-pairs fonts of *hangeul* -

주저자 : 유정미 (YU, Jeong-Mi)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교수

이 연구는 대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1. 서 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범위와 방법

2. 탈네모글꼴의 개념 및 용어 정의

- 2-1 탈네모글꼴의 개념 및 용어 정의
- 2-2 한글의 창제 정신

3. 한글의 기계화와 탈네모글꼴 개념의 형성

- 3-1 초기 한글 글꼴의 특성
- 3-2 한글 글꼴 체제의 변화와 탈네모글꼴
- 3-3 탈네모글꼴의 의의

4. 탈네모글꼴의 역사 연구

- 4-1 시각적인 체계화 연구
- 4-2 대중적인 실용화
 - 4-2-1 샘이깊은물
 - 4-2-2 안체
 - 4-2-3 공한체
 - 4-2-4 대표적 탈네모글꼴의 비교 분석

5. 탈네모글꼴과 디지털 기술의 만남

- 5-1 서체개발 전용 프로그램의 등장_폰트그래퍼
- 5-2 디지털 기술로 인한 탈네모글꼴의 대중화
- 5-3 디지털 시대와 탈네모글꼴의 전망

6. 결 론

참고문헌

(要約)

한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자 원리에 따라 창제되었다. 세계 대부분의 문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에 비해 한글은 문자를 만들던 당시 언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져 세계의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한글 글꼴 디자인은 창제이념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올바르게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시 사용되던 한자의 영향으로 네모 틀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네모글꼴 한 벌을 디자인하려면 무려 11,172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자모 28자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시각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글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모글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1900년대 서구로부터 도입된 타자기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타자기는 한글의 모아쓰기 원리를 활용하여 닿자와 활자를 키보드에 배열하므로 활자를 쉽게 조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개념이 탈네모글꼴이다. 그중 특히 세벌식 글꼴은 닿자와 활자 그리고 받침자를 합하여 총 67자를 기본 자수로 제작할 수 있다.

세벌식 글꼴 개념은 기존의 네모글꼴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 일뿐 아니라 한글 창제 이념의 본래적 의미를 계승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한글의 기계화로 비롯된 세벌식 글꼴 디자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래 한글 글꼴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탈네모글꼴 디자인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발전을 거듭하므로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특성에 부합되고 있다. 훈민정음이 한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문자적인 독자성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처럼 탈네모글꼴 디자인이 우리 글꼴 디자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밝히려 한다.

(Abstract)

Hangeul as the Korean unique characters were invented according to some character-making principles and based on scholars' exhaustive researches. While most of the characters in the world evolved naturally, *Hangeul* was invented based on a precise linguistic analysis of the time, and therefore, it is most scientific and reasonable among various characters throughout the world.

Nevertheless, *Hangeul* typeface designs do not seem to inherit the ideology of scientific and reasonable *Hangeul* correctly. For the square forms have been used intact due to the influences from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prevailed during the time. If a single set of square characters should be designed, as much as 11,172 fonts should be designed, which suggests that advantages of *Hangeul* may not well be used fully; *Hangeul* was invented to visualize every sound with the combinations of 28 vowels and consonants.

Problems of such square fonts began to be identified since 1900's when typewriters were introduced first from the West. Since a typewriter is designed with 28 characters laid out on its keyboard by using such combinations, the letters may be easily combined on it. The so-called the flexibility square-format typeface was born as such. Specially, the three-pairs fonts of these can be combined up to 67 letters including vowels and consonants. The three-pairs fonts system can help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onventional square fonts and inherit the original ideology of *Hangeul* inven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three-pairs fonts designs facilitated by mechanic encoding of *Hangeul* and thereupon,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future *Hangeul* fonts.

Since the flexibility square-format typeface is expected to evolve more and more owing to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they would serve our age of information in terms of both functions and convenience. Just as *Hunminjeongeum* tried to be literally independent from the Chinese characters, so the flexibility square-format typeface designs would serve to recover identity of our *Hangeul* font designs.

(Keyword)

flexibility square-format typeface, three-pairs fonts of *hangeul*, historical study.

1. 서론

1-1 연구목적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우수하고 그 제자원리가 매우 과학적인 문자이다. 대부분의 세계 문자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과는 달리 한글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제자원리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창제된 문자이다. 소리글자인 한글은 간단한 자모 조합으로 자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원리를 갖추고 있다. 그 형태는 간결하고 단순하여 기하학적인 모양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글은 활자 문화에 있어서는 태생적인 우수성과 과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리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뜻글자인 한자의 글자 틀인 네모꼴을 따르고 있다. 이는 글자의 조합 방식과 상관없이 똑같은 네모 틀을 유지하므로 모양과 크기가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특히 복잡한 구성의 굵은 활자체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또한 28개의 닿소리와 홀소리 글자를 모아서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본래 한글 원리와 달리 실제로는 소리마다별로 완성된 글자를 활자로 만들므로 11,172자를 기본자수로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성과 속도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한글 글꼴을 한자 문화의 영향으로 시작된 네모꼴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글의 활자를 탈네모 틀인 세벌식 글꼴로 채택한다면 경제성과 기능성 그리고 조형성면에서 창제 원리의 우수함과 과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한글 글꼴은 세벌식 글꼴이 적절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전제로 탈네모글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탈네모글꼴의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 보았다. 본론에서 탈네모글꼴의 역사를 시작 초기부터 현재 상황까지 연구해보았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활자 정보 영역이 멀티미디어 분야 등 더욱 확장되어가고 있는 만큼 탈네모글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탈네모글꼴이 디지털 세레 속에 빠르게 대중들 속을 파고들며 표준화된 글꼴로 자리 잡아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한글이 창제 당시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철학과 정신을 이루어냈다면 세벌식 글꼴이 활자의 자주성과 독창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탈네모글꼴의 역사를 연구하는 범위는 한글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인 현재로 정하였다. 이는 한글의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 탈네모글꼴이 그 개념을 실제화 시키고 실질적인 실험을 하게 된 시점이 해방 이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출시된 서체는 전문 디자이너와 그들에 의해 설립된 서체 회사에서 개발한 탈네모글꼴에 한정시켰다. 전문 서체 디자인 회사는 서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한글 글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과 세미나 그리고 강연들을 통해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삼았다. 또한 전문 디자인 잡지에 기고한 기사 내용도 참조하여 연구하였다.

탈네모글꼴 디자인의 역사는 발표 순서별로 기술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가 이후 연구에 영향을 미치며 더욱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범위와 방법으로 탈네모글꼴의 역사를 연구하므로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적인 한글 글꼴이 탈네모글꼴임을 밝혀나갈 것이다.

2. 탈네모글꼴의 개념과 한글의 창제 정신

2-1 탈네모글꼴의 개념 및 용어 정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글꼴은 크게 '네모글꼴'과 '탈네모글꼴'로 나눌 수 있다. 네모글꼴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글꼴로서 한 벌의 글자가 글꼴 구조에 상관없이 똑같은 네모틀 안에 놓여지는 글자를 말한다. 탈네모글꼴은 네모글꼴의 상대적 개념인 용어로서 한 벌의 글자가 글꼴의 구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글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한글꼴의 기본 틀인 정 네모꼴의 정형을 뛰어넘은 새로운 구조의 한글꼴이라 할 수 있다. 탈네모글꼴은 그 조합 원리에 따라 각각 여러 형태의 글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 세벌식 글꼴은 한글의 창제 정신과 원리를 잘 파악하여 한글의 구조적 본질과 기능에 충실한 글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탈네모글꼴 중에서도 세벌식 글꼴을 더욱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세벌식 글꼴의 개념은 한글 글꼴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닿자 19자, 홀자 21자 그리고 받침 27자를 합하여 총 67자를 기본수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1) 이 보다 더 많은 기본 자수를 갖추게 되면 그 벌수에 따라 네벌식 혹은 다섯벌식 또는 다벌식이라 부른다.

| | |
|---------------|---------------------------------|
| 닿자 19자 | |
| 기본 닿자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 14자 |
| 쌍닿자 | ㅃ ㅆ ㅉ ㅊ ㅌ 5자 |
| 홀자 21자 | |
| 기본 홀자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0자 |
| 복합 홀자 | ㅙ ㅞ ㅟ ㅠ ㅢ ㅤ ㅥ ㅦ ㅧ 11자 |
| 받침 27자 | |
| 기본 받침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 14자 |
| 쌍받침 | ㅃ ㅆ 2자 |
| 겹받침 | ㅅㅅ ㅅㅇ ㄹㅇ ㄹㅅ ㄹㅁ ㄹㅂ ㄹㅅ ㄹㅇ 11자 |

[그림1] 세벌식 글꼴 구성의 기본 낱글자

네모 글꼴로 글자를 디자인하게 되면 온전한 글자꼴 한 벌의 수는 11,172자가 필요하다. 조합형식을 빌리더라도 최소한 2,350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비한다면 탈네모글꼴인 세벌식 글꼴은 67개의 글자 수만으로 한글의 모든 표현이 가능하므로 매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벌식 글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한

글 창제의 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2-1. 한글의 창제 정신

한글을 창제하게 된 동기는 <훈민정음해례>¹⁾ 서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1) 우리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로는 그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백성들이 제 뜻을 충분히 펼 수 없다. 3) 따라서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실생활에 쓰게 한다.'는 것이다.²⁾ 여기에서 밝힌 한글 창제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중성과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글자의 보편화를 이루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문화증흥을 꾀하려는 '자주'의 뜻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한글의 창제 정신은 민족 민주정신과 정보 전달을 위한 실용의 정신임을 알 수 있다.

한글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닿자는 소리가 나오는 입 속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홀소리는 자연의 중요한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둥근 점, 가로줄기, 그리고 세로줄기를 기본 꼴로 정했다. 또한 한글은 단순한 기하학적 조형 요소로 갖추어졌다. 점과 수직선, 수평선과 사선 그리고 동그라미를 기본 요소로 하기 때문에 낱자간의 조화와 전체적인 리듬감을 주는 패턴 인식이 뛰어나다.

또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모아쓰기를 한다. 닿자와 홀자 그리고 받침자를 모아쓴다. 그리고 한글은 우리말에 맞는 글자이다. 한글에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삼분법은 중국말에서 음절을 성모, 운모로 나누는 이분법과 대비된다. 중국말의 성모는 초성과 같은 것이지만 운모는 중성과 종성으로 갈린 셈이다.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글을 결국 우리말에 맞는 글자로 창제한 것이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으로 또 들 수 있는 것은 낱소리글자로 말과 글의 표현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글은 낱소리를 조합해 소리마디를 글자화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리글자 중에서도 낱소리가 하나하나 쉽게 구별되는 글자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 글자 한 소리의 낱소리글자이다.³⁾

이상으로 살펴본 한글의 창제 동기와 조형적,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글 창제의 정신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즉 기능성과 실용성을 대원적으로 삼았다. 둘째, 한글은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다. 시각적인 형태뿐 아니라 음가의 표현 방식이 단순하다. 셋째 한글은 합리적이다. 우리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조합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한글은 세계 어느 문자보다 우수하고 과학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작 한글 글꼴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는 그 우수함과 과학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훈민정음의 원본에 해당하며, 세종이 28년 9월에 반포할 때 간행하였다. 이 책은 일찍이 없어져 볼 수 없다가 1940년경 발견되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본문, 해례, 정인지의 서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문은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을 말한 뒤에 스물 여덟자의 발음과 운용 원리를 설명하였고, 해례는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웅자해의 여섯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제자본에는 훈민정음의 동양철학 배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셋째 부분은 발문인데 주로 '정인지의 서'라고 알려져 있다.

2) 안상수·한재준 : 한글디자인, 안그라픽스, 26p (1999)

3) 안상수·한재준 : 앞에 든 책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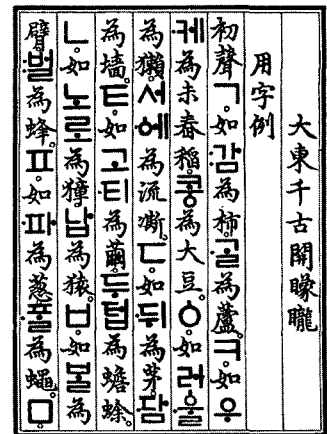
3. 한글의 기계화와 탈네모글꼴 개념의 형성

3-1. 초기 한글 글꼴의 특성

창제 이념에 따라 훈민정음⁴⁾은 기하학적이고 단순, 명료한 구조를 이루는 자주성을 확보한 것에 비해 한글 글꼴은 초기부터 한자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왔다.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글자꼴을 네모 틀에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자와 같이 세로쓰기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해례본)>에 인쇄된 한글 글꼴을 살펴보면 간결·단순·명료하며 기하학적인 형태를 보인다. 한글 창제 초기에 나타난 글자꼴은 글자 원리에 충실할 뿐 아니라 글자줄기의 성격과 닿소리 및 홀소리 글자 형태가 붓으로 쓰기에 쉽지 않은 기하학적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한글 글꼴의 기본 틀은 한자와 같이 정사각형 안에 놓여있는 네모꼴이다.⁵⁾ 훈민정음을 한자와 구별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형태로 창제한 점을 감안한다면 글꼴의 기본 틀은 한자와 같은 네모꼴로 만든 점은 대조적인 일이다.

이후 훈민정음은 당시의 필기도구인 붓의 영향으로 서서히 붓글씨 성격으로 변모되어 갔다. 한글 글꼴의 변형은 붓글씨 양식과 함께 활자 제작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붓글씨의 자유스러운 성격이 활자 혹은 인쇄용 새김글자의 가지런한 성격으로 다듬어져 1700년대 말 경에는 오늘날과 같은 가장 익숙한 바탕체의 원형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림2] 훈민정음 원본 해례활자체 (1446). 창제 당시 한글 글꼴은 기하학적인 단순한 줄기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달자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한글은 창제 초기의 네모진 단순한 줄기와 기하학적인 형태가 붓글씨의 영향으로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으며 한자의 활자본을 기본으로 삼으므로 정네모틀 속에서 쓰여지는 오늘날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한자와 같은 세로글줄을 기준선으로 삼는 세로쓰기 체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3-2. 한글 글꼴 체제의 변화와 탈네모글꼴

한글 글꼴 체제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건 새로운 문명과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1800년대 말경 서구 문명의 한반도 등장과 함께 로마자가 유입되었다. 세로쓰기 체제의 한글을 가로쓰기 형식인 로마자와 섞어 써야 하는 일은 문화적인 충돌

4) 훈민정음은 1443년(음)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국 고유문자인 '한글'의 처음 이름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에 대한 제자의 근거와 운용법 등을 해설한 책의 이름을 말하기도 한다.

5) 어떤 이는 훈민정음에 인쇄된 활자가 탈네모글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받침이 있고 없음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미세하게 다른 것이지 지금과 같은 개념의 탈네모글꼴과는 다르다고 본다.

이라 할만 했을 것이다. 1880년에 간행된 「한불자언」에 로마자와 한글을 병용하여 최초로 가로쓰기 체제가 시도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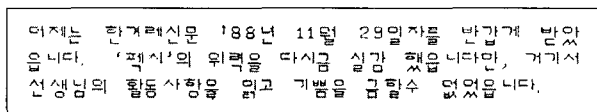
동시에 서구 기계문명인 타자기가 소개되었다. 최초의 한글 타자기는 1900년대 초 미국 장로교에서 파견된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에 의해 만들어졌다.⁶⁾

타자기로 비롯된 한글 기계화는 기존에 정착된 한글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인쇄용 주조 활자에서 한글 한 벌의 활자체를 갖추려면 최소한 2,350자 이상의 글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타자기에서는 한글의 모아쓰기 원리를 응용하여 닿소리 글자와 홀소리 글자를 키보드에 배열하여 타자함으로써 모든 활자를 손쉽게 조합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글은 서구 문명인 로마자를 만나게 되므로 세로쓰기 체제와 네모글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또한 탈네모글꼴에 대한 개념은 타자기의 도입으로 비롯된 기계화 과정에서 생겨났다. 기존의 전통적인 네모글꼴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조형의 탈네모글꼴이 생겨난 건 활자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필기구에서 기계로 바뀌는 과정의 필연적인 파생물인 것이다.

한글을 기계화하기 위한 타자기 활자체를 개발해보면 첫 닿자와 홀자, 그리고 받침 닿자를 분리해서 각 한 벌씩 최소의 자모만을 자판에 올려야만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닿자와 홀자를 분리, 조합해서 글자를 쓰고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결국 탈네모글꼴은 우연이었던 필연이었던 한글 기계화 과정에서 얻게 된 큰 발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탈네모글꼴 중에서도 제대로 된 세벌식의 개념은 해방 이후라 할 수 있다. 미군정하에서 타자기의 사용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한글의 기계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탈네모글꼴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세벌식 타자기를 주장한 공병우 박사였다. 1950년대 한글의 원리와 구조를 충실히 따른 세벌식 타자기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탈네모글꼴을 처음 선보였다. (그림 3)



[그림 3] 1949년 발표한 공병우박사의 세벌식 타자기 글자꼴

3-3. 탈네모글꼴의 의미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네모글꼴이 오랫동안 일반인들의 미감에 익숙하게 정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벌식 타자기를 창제한 공병우 박사의 주장과 한글 글꼴 연구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이지 못하다. 네모글꼴은 기계화에서 처리 속도가 늦고 디자인하기도 힘들다. 둘째, 글자의 공간 배분을 들 수 있다. 복잡한 글자이건 단순한 글자이건 똑같은 네모 틀 안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진다. 셋째, 혼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혼민정음은 초성, 중성,

종성을 가로와 세로 또는 세로와 가로로 모아쓰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글자를 만들면 네모꼴이 아닌 탈네모의 세벌식 글꼴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기계끼리 호환성을 갖기가 어렵다.⁷⁾ 그 외에도 네모글꼴은 현대에 와서 보편적인 가로쓰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 탈네모글꼴, 그중 세벌식 글꼴은 닿자와 홀자 받침자를 모두 합쳐 67개의 최소 자모 조합으로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 세벌식 글꼴의 장점을 살펴보면, 한글 디자인과 기계화 속도가 경제적이다. 가독성에 도움을 줄 여지가 많다.⁸⁾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한글 창제 원리에 맞다. 기능적이고 기계화가 용이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계화와 디지털화가 추구하는 장점도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벌식 글꼴은 네모글꼴에 비해 쓰임새와 기능면에서 큰 장점을 지녔다. 그러므로 한글 창제 이념에 더 충실한 글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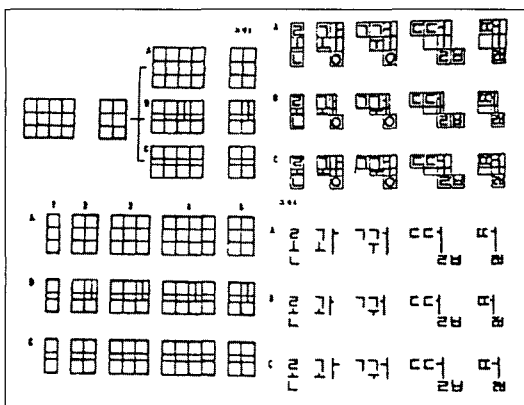
이로써 한글은 19세기 이후 서구 문물의 유입과 함께 로마자의 영향으로 가로쓰기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타자기로 비롯된 기계화의 시작으로 탈네모글꼴을 시도하게 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이는 한글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보다 미래 지향적인 원리와 구조로 발전해 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 탈네모글꼴의 역사 연구

4-1. 시각적인 체계화 연구

초창기 타자기의 보급으로 시작된 한글 기계화 과정에서 정작 디자이너들의 태도는 무관심했거나 소극적이었다. 더구나 탈네모글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기존의 명조체와 고딕체로 대표되는 다양하지 못한 네모꼴 활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정도였다. 이 시기 동안 디자인 분야는 탈네모글꼴이 한글 활자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활자라는 점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1970년대 들어서고서야 몇몇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소극적이거나 탈네모글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디자이너로서 최초로 탈네모글꼴에 대한 제안은 1976년 조영제의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림 4)



[그림 4] 1976년 발표한 조영제의 탈네모 글자 시안

조영제는 한글 타자기에는 기존의 네모꼴 활자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에 적합한 활자를 디자인해야 하는

6) 이용제 : 한글 기계화 _디자이너는 없었다, 디자인네트, Vol 90, 88p (2005)

7) 송 현 : 한글자형학, 198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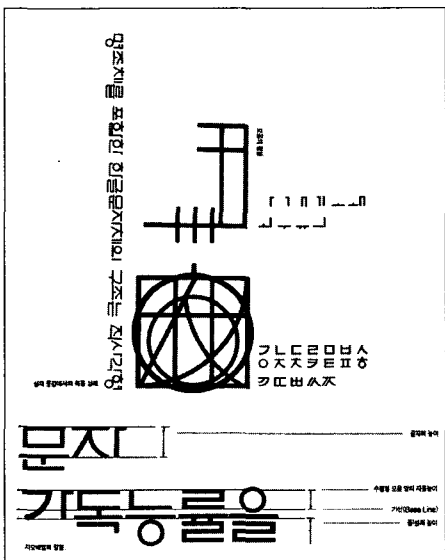
8) 안상수 : 한글 디자인의 과제, 예술과 비평, 창간호 1984년 봄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한글의 구조와 타자기의 구조의 한계를 비교하고 연구하여 세 가지 안으로 글꼴을 제안하였다. 그는 한글 글자꼴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 배분 문제와 최소단위의 기본 자모만으로 모아쓰기를 시도하여 한글 글꼴의 기능적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그 후의 연구자들에게 네모를 탈피 글자꼴 개념을 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⁹⁾ 하지만 조영제에 의해 제안된 탈네모글꼴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벌식 글꼴은 아니다. 그리고 한글 글꼴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지 못한 채 단발적인 연구에 그쳤다.

1977년 또 다른 디자이너 김인철 역시 탈네모글꼴을 제안하였다. (그림 5) 특히 김인철은 알파벳의 로마자가 가독성이 좋은 이유로서 글자 높이의 차이로 인한 리듬감이라고 판단하여 이 리듬감을 한글 글꼴 개발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게 해서 제안된 글꼴은 기본적인 당소리와 흘소리 글자만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아지도록 하여 특징 있는 글자 윤곽과 가지런한 가로 줄줄 균형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네모꼴 글자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김인철이 제안한 탈네모글꼴은 한글의 조형원리에서 출발했다기보다 로마자의 리듬감을 차용해온 시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네모꼴 활자에 의한 관습적인 조형 감각을 벗어나지 못해 원칙대로 디자인을 할 경우 조형성에 무리가 있고 부분적으로 규칙을 벗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인철은 전통적 활자의 미적 가치와 실험적인 탈네모글꼴의 새로움 사이에서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70년대 조영제와 김인철 등 초창기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된 탈네모글꼴은 네모글꼴에 익숙한 전통적인 조형 가치와 새로운 실험정신의 낯섦 사이에서 고민한 시기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계화에 대한 기능적인 시도에 머물고 있던 탈네모글꼴에 대한 연구 수준이 디자이너들의 참여에 의해서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체계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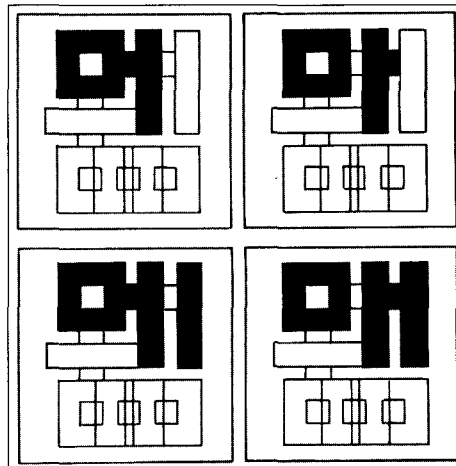
[그림 5] 1977년 발표한 김인철의 탈네모 글자꼴

9) 원경인 : 한글 글자꼴에 따른 판독성과 가독성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4-2. 대중적인 실용화

4-2-1. 샘이깊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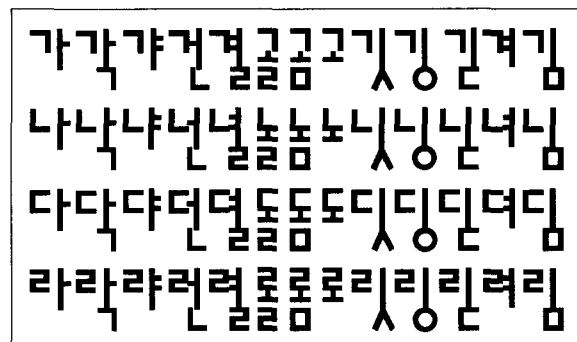
탈네모글꼴이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를 맞이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대중적인 전달 매체인 잡지나 신문에 사용되는 전용 서체를 탈네모글꼴로 개발하게 되었다. 이들 글꼴은 전문 디자이너들에 의해 개발된 탈네모글꼴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탈네모글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독성과 조형성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기도 했다. 실용화를 향한 그 첫 번째 자리에 이상철에 의해 개발되어 <샘이깊은물>에 사용한 샘이깊은물체(그림 6)가 있다. 이상철은 <샘이깊은물>의 아트디렉터로서 이 잡지에 사용할 활자인 샘이깊은물체를 1984년 창간호에 소개하였다. 기본적인 글꼴의 구조는 조영제가 제시한 탈네모 글꼴과 같다. 다만 받침의 위치를 세 가지로 제시하여 조영제의 모듈과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작 방식을 2바이트 체제로 디자인했기 때문이며 활자구조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그림 6] 1984년 <샘이깊은물> 잡지를 위해 이상철에 의해 개발된 샘물체

4-2-2. 안체

안체는 안상수에 의해 디자인되어 1985년 <과학동아>의 제호로 기본적인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후 <스포츠 서울>의 제목자로 쓰이면서 더욱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안체는 받침을 모음의 중심에 놓는 규칙이 특징이다. (그림 7) 또한 기본적인 원리 면에서 세벌식 글꼴의 본래적인 개념을 가장 잘 살린, 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첫 번째 서체라고 할



[그림 7] 1985년 디자인한 안상수의 안체

수 있다. 안체는 조형적으로도 매우 현대적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어서 세벌식의 장점을 잘 표현한 서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탈네모글꼴로서 조영제나 김인철의 서체가 이상적인 이론에만 그치고 말았다면 안체는 디지털 작업으로까지 이어져 지금까지 살아남은 서체이기도 하다.

4.3. 공한체

1990년대 발표된 한재준의 공한체와 한체는 탈네모글꼴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림8) 한재준은 세벌식 타자기를 개발한 공병우 박사가 운영하던 한글문화원 활동에 참여한 디자이너로서 한글 기계화에 적합한 한글 글자꼴을 연구하며 탈네모글꼴의 장점을 이론화하는데 주력하였다. 한재준은 공병우박사의 연구실 출신답게 공박사의 글꼴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¹⁰⁾ 그는 세벌식 자판기와 세벌식 글꼴만을 고수하며 탈 네모글꼴의 장점을 강조하려고 했다. 공한체는 기존에 발표된 탈네모글꼴이 제목자에 한정되었다면 이를 넘어서서 본문용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제시한 서체이다. 이로써 탈네모글꼴은 가독성이 나쁘다거나 조형성이 떨어진다 등의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게 되었다. 결국 공한체는 현장 디자이너들로부터도 반응을 얻기에 이르렀다. <아기 참새 찌꾸>는 어린이용 그림책으로 한재준의 글꼴을 사용하여 책을 디자인하였다. 한글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운용과 표현이 필요한데 <아기 참새 찌꾸>에 의해 시도된 공한체가 본문으로 쓰인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개별적인 글자만이 아니라 개성 있는 글꼴이 무리를 이루어 문장을 형성할 때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재준의 꾸준한 작업들은 무엇보다도 한글이 네모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탈네모글꼴이 단지 실험적인 시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고 대중화 될 수 있는 서체라는 점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탈네모글꼴은 가독성이 낮다거나 낮은 느낌 때문에 본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등 부정적인 논란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며 현재의 위상에 올려놓았다.

**한국과 한국 디자인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한국 고유의 글자인 한글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한글 활자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는 지적 여행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한국 디자인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한국 고유의 글자인 한글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한글 활자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는 지적 여행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1990년대 발표한 한재준의 공한체와 한체

10) 구성화: 한글 글자꼴 디자인의 명암, 월간 디자인, 172호, 48p, 1992.10

4.4. 대표적 탈네모글꼴의 비교 분석

같은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탈네모글꼴들 간에도 조형적인 구조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 개발 서체인 샘이깊은물체와 안체 그리고 공한체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탈네모글꼴을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 받침 위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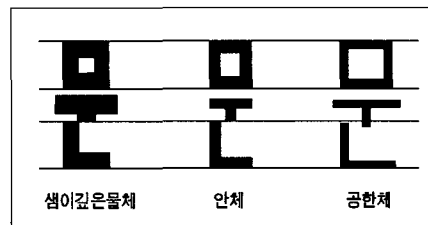
샘이깊은물체는 받침의 위치를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초성 바로 아래, 초성과 중성 사이 그리고 중성 끝이다. 이는 2바이트 체제로 디자인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안체는 받침의 위치가 한가지다. 중성의 가운데에 두고 있다. 받침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한 가지 구조로 획일화 되어 보여 글꼴이 모던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딱딱한 인상을 준다.

공한체도 받침의 위치가 한 종류이다. 다만 그 위치는 초성과 중성 사이인데 초성에 좀더 가깝게 있다. 이는 공병우 박사와 함께 연구한 세벌식 타자기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타자기에는 받침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받침의 위치가 '공'과 '광'에 동시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간 배분(모듈)의 문제

샘이깊은물체와 안체는 세로 공간을 각기 같은 크기로 모듈화 하여 층을 쌓아가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안체의 경우는 당자와 받침자의 모양이 같아서 초기에는 이별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비해 공한체는 모듈이 서로 조금씩 겹쳐있다. 이는 타자기의 원리에서 나온 구조이다. (그림9)



[그림 9] 대표적 탈네모글꼴의 모듈 비교

전통적인 네모꼴 글자의 문제점에서 시작된 새로운 한글 글꼴의 시도인 탈네모글꼴은 이로써 초기의 낯설고 어색한 느낌에서 벗어나 점차 발전을 거듭하여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기능적으로 접근했던 초창기 기계화 주창자들의 이상적인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조형적인 실험을 병행한 디자이너들의 합류로 이어진 덕분이기도 하다. 물론 탈네모글꼴이 디자이너들에 의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길지는 않다. 하지만 충분한 역량과 영향력을 갖춘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험되고 연구되므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오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여러 가지 쓰임새에 맞는 보다 다양한 활자체를 개발하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기술의 소개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5. 탈네모글꼴과 디지털 기술의 만남

5-1. 서체개발 전용 프로그램의 등장-폰트그래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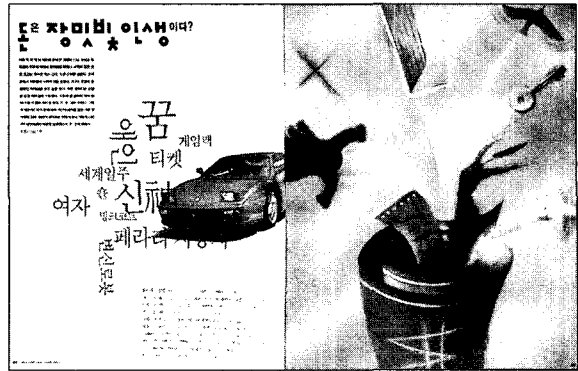
활자 문화 발전 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출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한글 활자를 일일이

손으로 그린 원도의 디자인을 필요로 하였다. 한사람의 숙련된 디자이너가 인쇄용으로 필요로 하는 방대한 양을 한자 한자 손으로 디자인하여 그것을 기본 모듈로 삼았다. 이런 과정은 한사람의 일관된 조형 감각과 이어지는 오랜 수정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엄청난 인내력과 지구력을 요한다. 디지털 시대 이전까지 한글 활자체가 서구의 알파벳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한정된 숫자의 서체만 개발되어 있던 것은 이러한 환경적 영향이 크다. 더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서체 개발자 역시 손으로 짚을 정도로 적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보상도 열악하고 작업 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디자인해야 하는 글자 수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다.

디지털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출현은 한글 서체 개발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우선 서체 개발 전용 프로그램의 등장이다. 폰토그래퍼(Fontographer)와 폰트스튜디오(FontStudio)를 비롯해서, 폰트매니아(Fontmania), 폰트랩(Fontlab) 등 디지털 서체 개발 소프트웨어의 등장으로 한글 글꼴 개발이 훨씬 용이해졌다. 이로 인해 한글 서체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기존에 명조체와 고딕체로만 한정되어 있던 한글 글꼴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 현재는 수백 종에 이른다. 더불어 서체 개발 기간이 단축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한사람의 서체 디자이너가 글자를 일일이 손으로 써서 그것을 기본 원도로 삼았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컴퓨터에서 서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활자를 디자인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짧은 작업 기간으로 한벌의 서체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서체 회사의 등장과 전문 서체 디자이너들이 늘어났다. 기존에 서체 개발은 활자 기기회사나 신문사 또는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서체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조형성까지도 연구하는 서체 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운영하는 서체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전문 서체 디자이너가 설립한 회사로서 석금호의 산돌글자은행과 윤영기의 윤디자인연구소¹¹⁾가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한글 서체 분야는 발전의 주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한글 활자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5-2. 디지털 기술로 인한 탈네모글꼴의 대중화

디지털 기술은 탈네모글꼴 분야에도 주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서체 회사에서 개발된 서체는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 컴퓨터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보다 손쉽게 다양하게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소수의 의식 있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정된 작업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낮았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인식도 '실용적'이라거나 '낯설다'에 머물렀다. 한글학자들의 반응 역시 '빨랫줄에 걸렸다'(주요한 박사)거나 '들쭉날쭉 똥똥홀쭉'(한글자형학자 송현) 등으로 어색한 느낌을 감추지 않았다. 디지털 시대에 탈네모글



[그림10] 잡지<이매진>의 전용서체로서 제목자네 사용된 미르체.

꼴은 노출 빈도가 높아지며 더 이상 낯선 서체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전문 서체 회사들이 출시한 탈네모글꼴들은 잡지와 단행본 디자인에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전문 서체 회사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탈 네모 글꼴은 1990년 산돌글자은행에서 출시된 <돌체>이다. 국내 최초로 디자이너가 기업(두산그룹)과 계약에 의해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제목용 서체인 돌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석금호¹²⁾는 이후 90년 매킨토시 컴퓨터를 접하고 원도 작업으로 디자인했던 돌체를 디지털로 전환시켰다. 돌체는 잡지 <오픈>의 제호 및 본문의 제목용 서체로 사용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1990년에 윤체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서체 개발 회사를 시작한 윤디자인연구소는 초기에는 네모틀 글자 개발에 주력하였다. 윤디자인연구소에서 탈네모글꼴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비교적 늦은 1990년대 후반이었다. 1997년 하반기 동화적 느낌을 반영한 탈네모글꼴의 피노키오를 발표하였다. 이후 전통적인 명조체와 고딕체에 탈네모글꼴 느낌을 살린 윤명조 200계열과 윤고딕 200계열을 출시하며 탈네모글꼴의 저변화를 이끌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문 디자이너들의 탈네모글꼴 연구 또한 더욱 활발해졌다. 이들 서체는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다. 1997년 창간된 스타일 잡지 <이매진>은 전용서체를 안상수의 <미르체>를 (그림10) 채택하였다. 1998년 리디자인 한 <매종>은 라이선스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제호를 병용하면서 한제준의 공한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탈네모글꼴은 이제 한정된 디자이너들의 실험적인 서체에 머물지 않고 네모 틀 활자와 함께 보편적인 한글 글꼴의 한 분야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

대학교에서도 탈네모글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탈 네모글꼴 연구를 시작한 젊은 교수들에 의해 교육을 받게 된 학생들은 그 개념을 깨우치고 더욱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기 시작했다. 한글 글꼴 연구 동아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탈네모글꼴 디자인들이 시도되게 되었다. 홍익대의 한글꼴연구회를 비롯해서 서울여자대학교의 한글아씨, 상명대학교의 더 폴리오(the folio) 등이 대표적인 연구 동아리이다.

탈네모글꼴에 대한 신진 디자이너들의 관심과 열의도 높다.

11) 윤디자인연구소는 2005년부터 경영권에 변화가 생겨 윤영기 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2) 이희란:폰트샵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월간디자인, 172호, 73p, 1992.10



[그림 11] 한겨레는 2005년부터 본문을 시작으로 제목자까지 탈네모글꼴을 사용했다.

활자 디자이너 이용제는 2004년 <한글다다 작가마당·수다마당>이라는 작품전을 갤러리 팩토리에서 가졌다. 자신이 13년간 디자인한 탈네모글꼴 서체를 모아 작품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용제는 한 디자인 잡지사의 강연에서 “내 안의 호기심 즉, 세벌식 탈네모글꼴 활자에 대한 호기심은 한글디자인을 시작하게 했고, 한글 활자의 아름다움이 내게 한글디자인을 천직으로 살 것을 강요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탈네모글꼴에 대한 연구가 한 시대의 유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5-3. 디지털 시대와 탈네모글꼴의 전망

세벌식 글꼴은 아니지만 네벌식 혹은 다벌식으로 탈네모글꼴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창제 이념의 본래적 철학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일순간에 네모틀에서 세벌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다벌식이지만 탈네모글꼴의 저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네모틀 활자에 비해 보다 경제적이고 기능적이라는 측면에서 증가 추세는 가속될 전망이다.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문의 본문 활자에 다벌식이지만 탈네모글꼴이 개발되었다. 한겨레신문은 제2창간 작업을 통해 2005년 5월16일 자 이후 본문에 새 글꼴을 소개했다. (그림11) 서체 이름을 ‘한겨레 결체’, 줄여서 ‘한결체’로 칭하며 탈네모글꼴을 핵심으로 한 서체를 개발하였다. 신문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적인 미디어인 만큼 읽기 습관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매체에 분명하다. 또한 신문은 가장 늦게까지 세로짜기형 본문 조판을 고수한 미디어이다. 그렇다보니 본문의 글꼴 또한 책이나 잡지보다 세로조판 형태에 더욱 적합하게 다듬어져왔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매체가 전용 활자체로서 탈네모글꼴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다. 미래에 한글 서체가 어떤 글꼴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라는 의미도 된다.

그동안 국내 신문들이 글꼴의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은 글꼴의 수정에 한정되어 있었다. 기본적인 글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신문에서는 영역 밖의 일처럼 여겨졌다. 더구나 네모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권위’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비칠 정도였다. 지난 1985년 안상수체로 한글 디자인을 네모 틀에

서 해방시킨 안상수 교수마저도 한 줄로 나란히 정렬되지 않는 글꼴을 종합일간지에 적용하지 못했다.¹³⁾ 이처럼 네모글꼴은 전통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한겨레는 1988년 창간 당시 종합일간지로는 최초로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실시한 전력에 있는 신문이다. 이후 다른 신문들도 차례로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뒤따랐다. 이로써 우리나라 활자 문화는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가 대세로 바뀌었다. 이런 관점에서 한겨레의 탈네모글꼴의 선택은 종합일간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한글 활자 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이 발전할수록 탈네모글꼴은 그 쓰임새가 더욱 유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속도와 경제성이 주요한 관건이다. 이때 사용되는 텍스트는 용량을 많이 차지할수록 속도도 느려지고 비용도 더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는 네모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기본 자수를 갖추면 되는 탈네모글꼴이 더 유리할 것이다.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가 대중화되면 데이터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탈네모글꼴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디지털 텔레비전은 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그래픽 데이터를 스크린에 펼쳐 보인다. 여기에서 한글 폰트는 텔레비전의 메모리나 셋톱 박스의 메모리에 내장된다. 네모글꼴 한 문자의 데이터 용량은 1.8MB(영문글꼴 한 문자는 55KB)나 된다.¹⁴⁾ 컴퓨터에서 입출력이 가능한 완성형으로 11,172만자를 저장해야 하는 네모글꼴에 비해 67개 자소만 있으면 되는 탈네모글꼴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송에서도 탈네모글꼴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탈네모글꼴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서 디지털 방송용으로 탈네모 한글꼴 ‘티비돋움체’를 개발하면서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¹⁵⁾ 대중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에서 탈네모글꼴의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면 앞으로 탈네모글꼴에 대한 친숙도 역시 점차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에 문자 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탈네모글꼴의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휴대전화에 네모글꼴을 적용하면 많은 데이터 용량으로 인해 ‘폰체’를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탈네모글꼴은 수십 개를 내장하더라도 용량이 적게 차지하므로 훨씬 유리하다.

이처럼 한글은 디지털 기술의 세레 속에서 빠른 속도로 사용자층을 넓혀가면서 표준 글꼴을 네모틀에서 탈네모글꼴로 바꾸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6. 결론

문자는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지적 자산이기도 하다. 동시에 문자를 포함한 문화적 양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불편부당하다고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3) 고딕과 명조의 독재를 허물어라, 한겨레21, 50p, 제560호, 2005.5.24
 14) 앞의 글 51p
 15) 앞의 글 51p

한글 활자에서 네모꼴이 기능성과 경제성 그리고 조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탈네모글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550년 넘게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문화적 관습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글 글꼴에서 세벌식이 더 한글 본래의 이념에도 맞고 디지털 시대에 기능적인 활자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디지털 시대는 정보가 곧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영상보다 문자가 단연 우세하다. 그러므로 문자의 활자꼴을 바꾸어 가는 일은 정보의 가치 창출을 높이는 일인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에 맞게 한글의 표준 글꼴을 세벌식으로 바꾸는 것은 문화적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

한글 글꼴은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한글 창제 초기에는 중국의 한자와 글쓰기 습관, 그리고 인쇄 방식의 영향으로 네모 틀을 선택했다. 이후 구한말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세로쓰기 체제와 네모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해방 후 한글 기계화 과정에서 가로쓰기를 채택하고 세벌식 타자기와 함께 탈네모글꼴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이 500여년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는 네모글꼴에 길들여져 마치 네모글꼴이 한글 활자의 정통인 듯이 믿게 되었다. 그 부분은 한글 창제 당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쇄기술이 네모꼴 글자와 기능이 맞았다는 점도 이유가 있다. 낱글자 한자 한자씩 된 활자를 사용한 인쇄 방식에서는 사각형의 규격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글자들은 고정된 틀 안에 짜여져야만 했다. 이러한 제약은 타자기를 제외하고는 해방 후 컴퓨터를 활용한 인쇄기술이 소개되기 이전까지 계속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글 글꼴이 네모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는 해방 이후 타자기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지만 조형성에 대한 실험은 1970년 중반 이후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가독성 문제와 네모 틀의 관습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대중적인 실용화 단계로 가지 못하는 못했다. 탈네모글꼴에 대한 유용성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만자가 넘는 완성형을 필요로 하는 네모글꼴에 비해 수 십자의 조합형만으로 활자화가 가능한 탈네모글꼴이 훨씬 경제적이고 속도도 빠른 장점을 발휘하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글 글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네모꼴과 탈네모글꼴은 한글의 표준 글꼴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되는 공방전을 펼칠 것이다. 인쇄 매체에 한정해서 서체가 사용되었던 산업화 시대에는 오랜 기간 익숙했던 전통적인 활자로서 네모틀이 우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아우르는 미디어 융합 환경의 디지털 시대에는 속도와 경제성면에서 탈네모글꼴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 글꼴의 옹호자들이 각자의 논리로만 무장한 채 공허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은 한글 글꼴에서 네모꼴 활자보다 탈네모글꼴, 그중에서도 세벌식이 기계화에 더욱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세벌식을 한글 표준 글꼴로 채택하는 일은 정보의 가치 창출 뿐 아니라 지적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네모꼴을 폐기하고 세벌식을 채택하자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 문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문화적 약속이자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두 글꼴의 조형적 완성도를 높이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타협안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속도와 경제성면에서 네모꼴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탈네모글꼴인 세벌식은 앞으로 더욱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학자들과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간다면 탈네모글꼴은 한글 창제의 본래적인 철학을 회복하면서 한글 글꼴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안상수 · 한재준, 한글 디자인, 안그래픽스, 1999
- 윤영기, 윤영기의 한글디자인, 도서출판 정글, 1999
- 석금호 편저, 타이포그래픽디자인, 미진사, 1994
- 강신형, 증보판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1,
- 한글 활자꼴 보호범위와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연구소, 2003
- 전자책용 한글 폰트 개발 결과 보고서, 서울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2002
- 통합체계로서의 한글 폰트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삼성 폰트개발에 대한 방향 제안,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연구소, 1999
- 이용제, 한글 기계화_디자이너는 없었다, 디자인네트, Vol 90, 2005
- 이용제, 탈네모꼴, 한글이 완성되다, 디자인네트, Vol 91, 2005
- 석금호, 전자출판과 한글꼴 개발상에서의 타이포그래피 문제점, 코그다 편집디자인세미나, 1993
- 한재준, 한글디자인의 또다른 가능성, 코그다 편집디자인 세미나, 1993
- 김진평, 한글 글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산업디자인세미나, 1990
- 석금호, 한글 창제이념을 계승한 새로운 한글 디자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디자인세미나, 1990
- 송 현, 한글자형학, 1986, 10
- 원경인, 한글 글자꼴에 따른 판독성과 가독성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구성희, 한글 글자꼴 디자인의 명암, 월간디자인, 172호, 1992.10
- 이희란, 폰트샵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월간디자인, 172호, 1992.10
- 고덕과 명조의 독재를 허물어라, 한겨레21, 제560호, 2005.5.24